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2> '그 무엇'

<선가귀감>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머리부터 심상치가 않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단락에서 불교를 어렵게 여겨 겁을 먹고 공부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내용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도 한 중요한 내용이기에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우면 기억이라도 해두어야 한다. '그 무엇'이라고 번역한 일물(一物)은 선가에서 참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이다.

有一物於此 從本以來 昭昭靈靈 不曾生 不曾滅 名不得狀不得

여기에 '그 무엇'이 있는데 '본디 밝고 밝아서 신명스러워서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었으니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으니라.

원문에 나오는 '일물(一物)'은 직역하면 보통 '한 물건'이라고 번역하기에 어떤 실물을 연상하기 쉽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무엇'이라고 번역하였다. 이 표현은 <금강경오가해> 서문에 나오는 '일물'과는 그 뜻이 같지만 육조 혜능 스님 계승에서 '한 물건'이라고 번역되는 '일물'과는 그 의미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육조 스님의 계승을 살펴보자.

菩提本無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

깨달음은 잡히는 존재 아니고 밝은 마음 이름뿐 실물 아니네 본래가 한 물건도 있지 않거늘 일어날 번뇌가 어디 있을까.

<선가귀감>에서 말하는 '그 무엇'은 '본디 밝고 밝아서 신명스러운 것'이다. 이는 육조 스님의 계승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뜻인 '보리(菩提)'와 '밝은 마음'의 뜻인 '명경(明鏡)'에 해당된다. '그 무엇'은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는 것인데,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하여 육조 스님이 억지로 이것을 깨달음이냐 밝은 마음이라고 표현했다.

'그 무엇'에 해당하는 깨달음은 잡히는

'一物'은 실물 아닌 깨달음의 경지 철저히 깨닫기 전에는 '알음알이'

어떤 존재가 아니고, '그 무엇'에 해당되는 밝은 마음은 이름뿐이지 어떤 실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 구절에서 어떤 실물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일물(一物)로서 '한 물건도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다.

<선가귀감>의 '일물'은 부처님의 영역인 '그 무엇'을 말하고 육조 스님의 '일물'은 중생의 영역에 있는 '어떤 실물'을 말하니, 낱말은 같지만 그 뜻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

부처님의 영역에서 중생인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중생의 번뇌가 어떻게 있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러기에 육조 스님은 "일어날 번뇌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며 계승을 매듭짓는 것이다. '그 무엇'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서산 스님은 허공에 둥근

원(圓)을 그리고 말씀하셨다.
古佛未生前 凝然一圓相 釋迦猶未會 迦葉豈能傳

이 세상에 옛 부처님 태어나기 전 빈 허공에 서린 기운 한 가지 모습 석가모니 부처님도 알지 못하니 가섭인들이 도리를 어찌 전하랴.

이 뜻은 '그 무엇'이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었기에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는 것이다.

육조 스님이 대중들에게 "나에게 '그 무엇'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니 그대들이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신회는 "모든 부처님의 본원(本源)이 신회의 불성(佛性)입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답했던 신회는 육조 스님의 법을 이어받지 못했는데, 이는 중생의 알음알이로 대답했기 때문이다.

승산에서 온 회양에게 육조 스님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라고 물었다. 회양이 찢찢때때 8년이 지나고서야 "철사 '그 무엇'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는 근본을 철저히 깨닫고 한 일이었기에 회양 스님은 육조 스님의 법을 이어 받았다.

이 경계는 부처님의 세상이므로 참으로 부처님만 알 수 있고, 순수한 깨달음으로 오직 깨달은 조사 스님만이 알 수 있다. 중생의 알음알이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자리를 어떤 경계로서 안다고 말씀하시면 그 순간 중생의 알음알이에 떨어지게 된다. 서산 스님은 이 경계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三教聖人 從此句出 誰是學者 惜取眉毛

부처님이나 노자 공자도 '그 무엇'에서 나왔으니 누가 감히 이 자리를 거론할 수 있겠느냐 함부로 입을 놀리다간 눈썹이 빠지리라.

원승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상식

목탁(木鐸) 잡는 법

목탁은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법구(法具)입니다. 고기 모양의 목어(木魚)가 둥글게 변형된 목탁은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고 살아가는 불교기를 보고, 수행자로 하여금 자지 말고 수행 정진하라는 뜻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절집에서는 독경이나 염불할 때 운율을 맞춰 목탁을 치고 있지요. 미혹하고 침체된 마음을 깨우치게

하는 의미가 바로 목탁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탁을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목탁을 바로 세워 손잡이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넣고 살며시 주먹을 쥐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목탁 위의 갈라진 부분을 세워 가슴 앞에 주먹 1~2개 정도 띄어서 똑바로 오도록 하지요. 이어서 목탁채는 채의 둥근 부분을 오른손가락으로 감싸 쥐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덮습니다.

목탁치는 것은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일자 목탁은 죽비처럼 법회나 참선의 처음과 시작을 알릴 때 치곤 합니다. 또 굴림 목탁은 정근 또는 염불을 할 때에, 내림 목탁은 합장 인사할 때나 절할 때 치는 방법입니다.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77)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23강 혜능의 돈교(1): 자성여래(自性如來)의 자선호념(自善護念)

마음은 우선 죽어야 할 물건이니, 왜냐. 그것은 한시도 가만있지 않고, 나무 사이를 졸졸치는 원숭이처럼 바깥 경계에 떠돌아 다니기 때문이다. 혜능은 이렇게 말한다.

1. 항복

"수보리는 보았다. 우리네 중생들이 예외없이 동동 허덕대는 것을... 뿌얹게 떠다니는 마음은 갑자기 태풍처럼 일어났다. 다시 열념상속(念相續), 또 다른 마음으로 이어져 쉴 새가 없는 것을... 대체 어떻게 수행해야 이런 마음을 항복시킬 수 있겠느냐?" 須菩提見一切衆生 躁擾不停 猶如暴風 搖動之心 起如飄風 念念相續 無有間歇 問若欲修行 如何降伏其心.

어렸을 때, 헛간 같은데서, 햇빛이 비치면, 판자들 틈으로 부연 먼지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동동거리며 천방지축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다. 도무지 진득한 안정감이 없는 것이다. 혜능은 선남자(善男子)라 바로 그것. 즉 평탄심(平坦心)과 정정심(正定心)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썼다.

그렇다고 지레, "그럼,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가부좌 하고 앉아 있다"라고 해서 는 만만 불가하다.

사람이 어찌 몸을 움직이지 않고 살겠는가. 요동을 치는지, 안정감이 있는지는 겉으로 분주한가 한가한가와와는 상관없다. 경허였던가, 스님 하나가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만나자, 아차 싶어 짹짹 쳐다 밀음으로 피했었다. 봉장을 열고 농부 하나가 편잔을 주었다. "거 도를 뒤으신 스님네가 채신머리없이 비 정도에 이리저리 들고 편단 말시오." 옷의 비를 털어내며 하늘을 보던 스님이 웃으며 대답했다. "비를 피하는 것과 도(道)가 무슨 상관있어?"

바쁘지 한가한지는 마음에 달려 있다. 천하의 대사를 저절하면서도 한가한 사람이 있고, 나처럼 컴퓨터 하나가 말쑥이면, 아차 싶어 한밤중에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 "아이구, 이거 큰일인데. 파일 다 날아갔네." 마음은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여기서 저기로 휩쓸려 다닌다.

세상은 평온한데 내 마음만 공연히 바쁘고 조급하다. 안에 힘이 풀리면 바깥은 집점 평온해진다.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가 당시에 동동거렸던 일들이, 지나고 나면, 사소한 일이었던 것들이 적어오 태반은 남지 않은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것을, 얻고 난 장난감들은 하루 이틀이면 반 한구석에서 먼지가 뒤집어쓰고 있고, 그토록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세월이 흘러가면 아련한 추억으로 남는다. 그 상념을 미리 당겨서 먼 현실을 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언제 한번 마음을 쉬어 보나. 그게 어렵다. 한순간에 십만 팔천 번의 상념이 오간다. 혜능의 말마따나 마음은 열념상속(念相續), 다시 마음으로 이어져 쉴 새(間歇) 없기 때문이다. 불교는 이 '부연 먼지'들을 가라앉히는 작업이다. 우선 마당에 잔물부터 뿌리고, 다음 이 먼지들이 어디서 오는지, 왜 이렇게 푸석거리는 구멍이 있을 때

살인도(殺人刀) 활인검(活人劍)

듯, 일거에 우르르 일어나 온통 신심을 덮어버려, 뭐가 뭘지 앞이 보이게 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들을 가라 앉히려 어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짚어보아야 한다.

2. 호념

이 부연 마음들을 어떻게 가라앉힐 것인가. 혜능은 여기 함부로 손을 대거나 돌로 누르려는 마음을 경계한다. 다만 자성(自性)의 힘을 믿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고만 권한다. 혜능의 돈교는 그 믿음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해 줄 것이라고 설교한다. 호념(護念)과 부촉(付觸)에 대한 혜능의 생각은 독창적이다. 그는 "여래(如來)가 밖에 서서 보살들을 축복하거나 부촉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여래(自性如來)가 자선호념(自善護念)할 뿐이라고 말한다. 즉 "자기 내부의 불성의 자각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여래가 보살들을 잘 호념한다는 뜻은, 여러 학인(學人)들로 하여금, 반야지(般若

행복동 사람들

아...정말 세상 살기 싫어지네. 신문엔 이런 기사뿐이고

나한선배, 아침부터 왜 그래요? 신문에 무슨 기사 나왔어요?

저모닝~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은 불공평해. 누군 부모 잘 만나 호강하고 누군 매일이 더 모양이 나...

또 그 얘기예요? 저번에 법회 때 스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나? 생각해보니 들은 것 같아. 그래도 말하...

우리가 사는 과거, 현재, 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과거의 내 행동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 한 순간 한 순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럼, 선배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나야 아무런 고통도 번뇌도 없는 무한 행복의 삶이지.

아~ 좋다

그야 모두가 원하는 삶이죠. 하지만 선배님 세상에 고통도 번뇌도 없다면 기쁨이나 행복도 아마 없겠지요? 어때요?

아니, 이 사람. 무슨 말을 못하게 하네. 알았어. 열심히 일 할게.

자, 그럼 제가 선배님 을 위해 대신 고민을 나가겠습니다.

과거·현재·미래는 하나

배종훈 (bjh4372@hanmail.net)

매 순간 흐트러지지 마세요.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짓는 것입니다.

참로, 제 마음과 몸을 기억하여(승), 망녕되지 증애(憎愛)를 일으키지 않도록, 또 바깥의 육진(六塵)에 물들지 않도록 하여, 생사의 고해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제 마음 가운데 생각 생각(念念)이 항상 바르게 있어 사악한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자성(自性)이 여래(如來)이고, 자선(自善)이 호념(護念)한다!" 言善護念者 令諸學人 以般若智護念自身心 不令妄起憎愛 染外六塵 墮生死苦海 於自心中念念常正 不令邪起. 自性如來. 自善護念.

역시 사랑과 미움이 문제이다. 주변을 둘러보라. 모든 문제의 진원은 사실은 마음속에 있다. 같은 잘못이라도 마음에 맞거나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은 눈감아주고, 같은 공적이라도 뜻을 달리 하거나, 당파나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은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기 바쁘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판단이나 태도가 공적이고 객관적임을 웅변하고 설득하고 강요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문제가 바깥에 있기보다, 안에 있다는 불교의 판단이 옳지 않은가.

난다. 불교는 바로 이 사사로운이 통하지 않는 은산(隱山)의 <객관성>을 향한 노력이다! 그것을 불교는 법(法)이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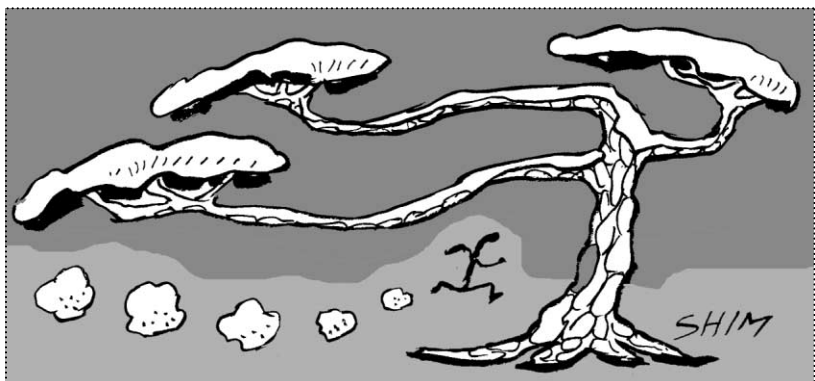
법(法)은 인정사정 보지 않는다. 나는 인도 불교의 다르마(Dharma)를 왜 법(法)으로 번역했는지 늘 궁금했다. 그 기미를 조금 짐작할 수 있다. 법은 투명한 세계를 가리킨다. 그래서 나는 법을 '객관적 사체'로 번역하기를 즐겨한다. 이에 대비되는 상(相)은 '주관적 판단'이다. 평화와 안정, 질서, 행복 등 인류가 꿈꾸는 가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주관성의 편견과 협애함을 자각해야 한다. 이곳에 착목(著目)했다면 반야(般若)법, 일은 거지만 이루어졌다.

수행이란 마음에 그런 불건전한 상념들이 더 이상 반복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단하는 일이다. 혜능은 선부촉(善付觸)이란 바로 그 지속적 정화의 노력, 즉 청정(淸淨)한 생각이 '이어져 나가도록(付觸)' 하는 일이라고 해석한다. "앞 생각도 청정하고, 뒷 생각도 청정하도록 이어져 끊이지 않도록 하면, 나중에는 결국 해탈할 것이다. 여래는 이 뜻을 중생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간곡히 일러 주었다. 그렇게 살도록... 이를 선부촉이라 한다."

言善付觸者 前念淸淨 付觸後念 淸淨無有間斷 究竟解脫 如來委曲顯示衆生及在會之家 當常行此 故云善付觸也.

마음은 그렇게 죽이고, 다시 살려야 할 물건이다. "살인도(殺人刀) 활인검(活人劍)!"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칼자루가 돌이 아니고, 하나라는 점이다. 그것이 혜능의 독창적 소식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희망이다. 다음 몇 회는 그 혜능선 이야기 해 볼까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자성여래(自性如來)는 "내 마음의 여래"를 가리킨다. 이는 "내 마음이 곧 여래이다"라는 말로서, "네가 부처다"라거나, "내 마음이 부처이다"라는 돈교의 취지를 그대로 표명하고 있다.

다만, 그 여래를 숨 막히게 하는 잡동사니와 장애물을 걷어주지만 하면 된다. 그 방법은 증애(憎愛)를 일으키지 않고, 육진(六塵)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색즉시공(色卽是空)이라,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 내부의 사랑과 미움의 투영에 불과하다!

만일 우리가 그런 사적 관심이 어지럽게 분출하는 것을 조정하고, 편견의 고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꿈꾸는 세상은 성큼 다가올 것이다. 그 점에서 불교는 옳다. 애증(愛憎)으로부터 자유롭다면, 그때 통연명백(洞然明白), 사태는 투명하게 드러